

간염의 진단과 치료 · 예방

1. 급성간염

이 경우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이 비교적 쉽다. 일반적으로 간염의 진단은 임상조건과 함께 혈액학적 검사에 의해 진단이 가능하다.

급성간염은 간기능 검사에 나타나는 변화가 뚜렷해 혈액 내 간효소치 특히 혈청 GOT와 GPT의 뚜렷한 증가가 나타난다. 이 수치가 정상치의 10~20배 이상 증가하면 급성간염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만성간염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수치의 증가를 볼 수 있으므로 감별에 조심하도록 한다. 이때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감별이 가능하다.

급성간염의 치료는 원칙적으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對症療法)과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보조요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항바이러스제제가 개발되지 않

은 현실점에서는 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정요법, 식이요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이 필요한 시기는 전구증상이 나타나서 황달이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회복되는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의 치료는 그 예후를 좌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입원이 필요한데, 특히 전구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영양공급이나 대증요법을 위해서 입원이 더욱 필요하다. 철저한 안정이 필요한 기간은 약 2~3주일이지만, 증상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급성간염의 전구증상기에는 구토나 식욕부진, 복통, 설사 등으로 음식을 잘 먹을 수 없으며 탈수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과 수분공급이 필수적이다.

섭취하는 음식은 소화가 잘 되



는 부드러운 음식을 주어야 하며, 식욕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황달기가 시작되면 식욕이 점차 회복되므로 영양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가 고칼로리의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비만현상이 나타나면 이로 인한 부작용과 지방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성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특효약은 아직 없다. 따라서 투약은 가능한 한 식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외에 신체적 증상에 따라 적당한 약제를 투여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흔히 다른 병으로 오인하고 간에 해로운 약물을 투여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급성간염을 예방하는 데는 두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가 수평감염의 예방이다. 보균자와의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간염이다. 보균자의 가족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 저항력을 갖도록 하고, 수혈이나 주사 시에 철저한 검사와 소독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번째는, 보균자로부터 태어나는 태아에 대한 예방이다. 출산 전 관리에서 보균자 산모를 가려내어

간염환자가 지켜야 할 10대 건강 수칙

1.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다.
2. 자신의 식기를 따로 사용한다.
3. 세면도구와 세수수건을 따로 사용한다.
4. 월경에 사용한 패드는 소각처리한다.
5.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
6.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7. 파로를 피한다.
8.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9. 쓸데없는 약은 삼가한다.
10. 가정과 직장의 위생환경을 청결히 한다.

출산 즉시 아기에겐 면역 글로블린을 투여하고 일정 계획에 따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2. 만성간염

우선적으로 환자의 자각증상에 의해 진단한다. 피곤함, 소화불량, 간 부위의 불쾌감, 헛배부름, 지방질 음식에 대한 거부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간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증상만으로는 완전한 진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몇가지의 검사가 필요하며, 때때로 만성간염인데도 증상이 전혀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 검사가 필요하다.

만성간염의 진단에 있어 간기능 검사는 필수적인 검사이다. 이 검사에서 간염의 경중을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다. 만성간염 진단에 혼

**간염이나
간질환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식이요법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히 쓰이는 검사는 GOT, GPT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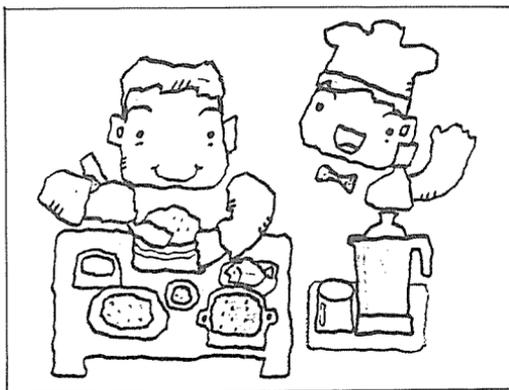
일단 간기능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간의 모양을 관찰하기 위한 초음파검사 동위원소 검사,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하게 된다. 이 검사는 만성간염 외에도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의 이행 관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간염의 최종 확진은 복강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통한 병리학적인 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성간염의 특효약은 아직까지는 없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장약은 간장의 활동을 보완하는 약제에 불과하므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병에 대한 저항력과 자생력의 회복이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정기검진과 함께 치료에 관한 지시를 받아 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성 간염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식이요법과 안정이다.

고단백·고칼로리의 식사는 파괴된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지방간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모든 영양소가 고루 갖추어진 균형잡힌 식사를 하도록 한다.



또한 염증의 정도에 따라, 염증이 심하면 철저한 안정을, 어느정도 나아지면 약간의 활동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함으로써 간염의 활성도를 측정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활동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지나친 안정은 오히려 의욕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활동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만성간염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이차적 합병증과, 그 변화에 의한 결과가 중요하다. 즉, 대부분의 경우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병이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2

만성간염에서는 모든 영양소가 고루 갖추어진 균형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